

2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■ '10년 노인일자리 사업, 18만 6천개 목표로 조기 추진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어르신들의 소득보충과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18만 6천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- 특히, 금년도에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에 대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이 최대한 조기 수행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사업계획 신청 및 심사, 참여노인 모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
 - 묘지실태조사원, 유적지관리원,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최근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새로운 공공분야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,
 - 아파트택배, 실버카페 및 식품 제조·판매 등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소득이 보다 안정적인 민간분야 일자리를 적극 보급하고, 금년 1월 오픈한 노인생산물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(하나하나몰)을 통한 판매 촉진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■ 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3.78배로 증가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)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2~2008년도의 노인성질환자 진료추이를 분석하였다.

- 2002년 대비 2008년 노인성질환 진료실인원 90.8% 증가(49만9천명 → 95만2천명) 노인성질환 총진료비 278.2% 증가(5천8백억원→2조1천9백억원)
 - 진료실인원

- ☞ 65세 미만 23만6천명(2002년) → 34만5천명(2008년), 46.2% 증가(↑)
- ☞ 65세 이상 26만3천명(2002년) → 60만7천명(2008년), 130.8% 증가(↑)
- 총진료비
 - ☞ 65세 미만 2천6백억원(2002년) → 6천7백억원(2008년), 152.1% 증가(↑)
 - ☞ 65세 이상 3천1백억원(2002년) → 1조5천3백억원(2008년), 383.2% 증가(↑)

2009년 출생아수 감소세 지속

1.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

- 통계청이 발표(2.25)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,
 - 합계출산율은 1.15명으로 2008년(1.19)에 비해 0.04명 감소
 - 출생아 수는 44.5만명으로 2008년(46.6만명) 보다 2.1만명 감소

2. 출산율 감소 현황

- 첫째자녀 출생아수가 1.2만명 감소 (총 출생아수 감소의 57.8%)
 - '08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.6만건이 감소한 결과로 추정
 - * 동거기간 2년미만 출산이 72%로 차지하여 혼인건수는 2년이내 출산에 영향
- 모(母)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이어져 전년에 비해 0.2세 상승한 31.0세를 기록
 -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
 - 그 결과, 30대 여성의 출생아수가 20대 여성의 출생아수 보다 많은 현상이 지속

3.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

-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 기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,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('11~'15)을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
 - 결혼연령이 늦어지지 않도록 결혼지원방안을 확충하는 한편,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을 꺼리는 주요인인 고용 및 소득불안을 해소
 -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직장문화 개선, 양성평등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
 - 중산층까지 보육·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이고, 둘째자녀이상 가정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

2013년 세계인구총회 부산 유치 확정

- 국제인구과학연맹(IUSSP)은 1월 28일(한국시간), 프랑스 파리에서 2010년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부산을 '2013년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' 개최도시로 사실상 확정했다.
 - '09년 12월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부산과, 호주의 아들레이드, 캐나다의 밴쿠버 중 부산을 최종 개최후보도시로 결정한 것이다.
- 앞으로 2월중 IUSSP의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, 현장 점검 후 최종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나,
 - 실사는 제안서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번 개최후보도시 결정이 사실상 개최지 결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.
- 세계인구총회는 국제인구과학연맹(IUSSP)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 성격의 회의로,
 - 대회 70~80개국 2,000여명의 인구문제 전문가, 학자, 교수 등이 모여서 세계 또는 지역사회의 인구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
-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인구총회는,
 -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, 국내외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지식과 세계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기회가 되는 한편,
 - 부산이 처한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2010년 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)은 '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,26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 - 그러나 당월(1월)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,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,507억원(6.2%), 총지출은 1,831억원(7.0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는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(4.9%)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('09년 12월분) 및 전년도말 선납(약 700억원)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('09년 12월분 전년동월비 18.4% ↑)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한,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,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

있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○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,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며, 또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■ ■ ■ 공공병원, 대수술 통해 새롭게 변신한다

□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(34개소), 적십자병원(6개소)에 대한 “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(안)”을 수립하여 2월 3일 14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시·도, 병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한다.

※ 지역거점 공공병원: 지방의료원(34개소), 적십자병원(6개소)

○ 이번 발전계획은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이며, 누적적자가 총 5,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,

- 시설·장비의 노후화,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하여 수립되었다.

□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(서울, 대구, 부산, 남원의료원)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.

※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

-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,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,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.

○ 또한,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,

-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,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.

○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하여,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,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·장비를 일체 개선한다.

■ ■ ■ 국민연금, 사회적 기업에 노후설계 교육 무료 제공

□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전광우)은 사회적 기업 지원 단체인 ‘함께 일하는 재단(이사장 송월주)’과 금융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노후설계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협약(MOU)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.

※ 사회적 기업: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2010년 2월 현재 290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에 8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.

※ ‘함께일하는재단’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극복 모델을 개발하는 공익재단으로 정부·기업·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발굴·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2009년 신한은행, 한전KPS, G마켓 등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□ 이번 사회협약은 금융소외계층, 취업취약계층, 장애인 등 주로 저소득층이 많은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게 스스로 하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전파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, 가계 재무건전성 강화 및 신용관리 방법,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또한, 공단은 현재 전국 81개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노후설계 강좌를 진행하는 등 정부 및 각종 사회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국민연금제도 및 노후설계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.

□ 공단의 노후설계교육은 베이비붐 세대(55~63년생)의 대거 은퇴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노후준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일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

※ 공단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노후준비와 건강·대인관계 등 노후 생활 영역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상담을 2010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노후설계 전문강사제를 도입하여 학교, 기관,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

□ 김용기 고객지원실장은 “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므로 공단의 노후설계 교육이 취약계층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(교육 신청 :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“1355”)

■ ■ ■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3월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

□ 2010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

○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

- (09) 소득하위 70%이하 가구의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➡ (10) 소득하위 70%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

- (09) 소득하위 60%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➡ (10) 소득하위 70%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

※ 기존의 0~4세 차등보육료, 만5세아 보육료, 장애아 보육료,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

○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

- (09) 부부 소득 모두 합산 ➡ (10) 부부 중 낮은 소득 25%를 제외 후 합산

○ 신청 방식

- (09) 매년 신청 ➡ (10)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, 소득·재산 변경시, 맞벌이 신규 지원 대상만 신청 필요

※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다자녀·맞벌이 신청 불필요: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

■ ■ ■ 복지부, '10년 지역사회서비스 137개 신규 사업에 135억 지원

-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우선 선정
- 기존 지원 규모 포함(총 1,100억원), 1만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35만명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
- 금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합산 방식 개선,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채희)는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공모를 통해 141개 지자체, 137개의 사업에 대해 1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아동 건강관리서비스,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주요 표준유형 사업(11개)를 중심으로 지원하되, 저출산·고령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(아동, 노인 등)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기존 지원을 포함하여 총 1,100억원)을 통해 약 35만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신규 지원(135억)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는 43천명

■ ■ ■ 소아·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, 연 3천만원까지 확대

- 소아·아동암 환자 가구의 의료비부담 추가 완화 필요성 제기
 - 최근 18세 미만의 소아 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,
 - 소아·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,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함.
- 소아·아동암 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전체의 8%정도는 지원상한액 이상의 의료비용이 소요
 - 대다수의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현행제도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나, 전체의 8%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상한액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상한액 확대 지원을 추진
 - 최근 2년간 소아·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,
 - 1천만 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%정도,
 - 2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3%정도로
 - 전체의 8%정도는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은 연 3천만원, 기타 암종은 연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확대 지원
 - 이에 복지부는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 -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함.

장례식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고제 도입한다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안에 대해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장례식장 영업의 “신고제” 도입(안 제29조제1항~제4항)
 - 화장시설(화장로) 설치·장소 기준 완화(안 제7조제2항)
 -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(사찰의 전통다비의식,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)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장례식장(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)내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유골*을 현존지**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함.
 - * 개장유골(改葬遺骨): 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
 - ** 현존지(現存地): 개장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분묘의 장소
 -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(안 제8조제1항, 제8조의2)
 -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 포함)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,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며,
 -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.
 -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·조성 기준 완화(안 제13조제2항)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·운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*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·이용을 유도함.
 -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(화장로) 비용보조 근거 마련(안 제36조제1항)
 -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(화장로) 설치·관리에 대하여도 비용보조를 확대함.
-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
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,
 -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/정보마당/법령자료/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.

■ ■ ■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 대폭 확대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현재 1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‘장애인 재활치료 사업’을 오는 2월 1일부터 3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‘전국가구평균소득’의 70%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
- 앞으로 소득 100%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
- 언어치료, 청능치료, 미술·음악치료,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-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,
 -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,564원 이하, 지역가입자 127,225원 이하가 해당한다.
-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- ※ 본인부담금: 기초생활수급자 면제, 차상위(생계비 120% 이하) 2만원,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4만원, 50%초과 100%이하 6만원
-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,
 - 단,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
■ ■ ■ 장애인도 운전면허 쉽게 딸 수 있어요!

- 국립재활원(원장 허용)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와 운전방법 등에 관한 『장애인의 자동차 운전』 책을 최초로 발간하였다.
-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국내최초로 장애인운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약 3,8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-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그동안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제도 및 취득방법, 장애유형별 장애인 자동차 운전방법,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및 복지시책, 알아두면 유익한 운전상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- 허용 원장은 “이 책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, 특

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기관,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하였다.

- 책자 내용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(www.nrc.go.kr)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어 있으며, 책자는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및 운전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선착순 무료 배포할 예정이므로 발송을 원하는 기관은 2월 19일까지 02-901-1553으로 신청하면 된다.

■ ■ ■ 저소득층 일자리-복지 토탈서비스 제공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, 3월부터 시범사업 확대 실시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하는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확대하여 실시한다.
-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가 '09년 부산과 경기 지역의 저소득층 2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취업률 31.1% 달성
 - 기존 자활사업의 성공률 15%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'10년도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 시범사업 확대 실시
 - ※ '09년(부산·경기 2,000명) → '10년(부산·경기·인천·전북, 3,200명)
-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 참여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알선과 함께 아이돌봄, 가족간병 등 취업장애 요인 제거 서비스 지원
 - 참여자 의사에 따른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과 취업 후 사례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 토탈 관리
 - 또한 저소득층의 취업을 가로 막았던 육아, 간병 등 취업장애요인에 대해 아이돌봄, 가족간병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
- 올해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는 참여자는 2월에 최종 확정되어 중도참여가 어렵기 때문에, 참여 희망자는 2월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 - 「희망리본프로젝트」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연계 관점에서 '09년에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으로,
 - 마땅한 취업처를 찾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여 줌으로써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경로를 개척하고,
 - 기존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일괄적 인건비 및 사업비 지급에서 탈피하여, 저소득층 취업률 등 수행기관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여 자활성과를 극대화한 데 의의가 있다.

■ ■ ■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!

- 희망키움통장 2010년도 사업 개시 -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오는 2월 22일(월) 2010년도 '희망키움통장' 사업을 개시하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○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,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

□ 올해 첫 실시 예정인 「희망키움통장」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주요 정책과제인 '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'의 핵심 사업으로, 그간 자활장려금* · EITC**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.

* 자활장려금: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자활소득의 30%공제, 1인당 월평균 7~10만원 지급

** 근로장려세제(EITC): 부부합산 연소득 1,700만원 이하, 재산 1억원 미만, 18세미만 아동 1인 이상 부양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(연간)내에서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

□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,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(사업 소득 포함)이 최저생계비의 70%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.

*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